



이라크 파병과 우리들의 각오

月 仁 李 昌 煥



1. 약자(弱者)의 복종

세계사의 제일은 강자들에 지배에 의한 생존이라는 것.
그것이 인류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성현의 말씀속에는 약육강식이란 사자성어가 내려오고 있다.

약자들은 살기위하여 강자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줘야 과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라크와 우리 한국은 아무 적세지감도 없는 나라이다. 서로가 오고 가고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평등한 이웃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고집이센 후세인의 독재자가 장기집권하면서 고분고분 미국대통령 부시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서 당하는 화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그렇지만 어찌는가 강대국의 요청을 거절도 못하고 승인도 하기 어렵다.

약자란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을 우리 조상님이나 현 정계는 몰라서 그런 못된 매국노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전인수와 부정축재 권욕 등 오

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과 나라를 도탄에 빠뜨려 놓은 위정자가 저주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5000년 역사속에 침략의 역사는 없고 침략을 당한 역사가 수도없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어떤 외국인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한다.

우리와 이라크는 적대국이 아니다.

강자인 미국이 아무리 우리와는 우방이요, 6 25때 우리를 도와준 유엔 16개국 중 대표국이지만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였다. 미국이 50여년간 이 나라에서 거래한 무역과 준비 등 얼마나 우리에게 팔고 맡겨놓고 대금을 가져갔는가.

그러나 우리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파병을 해야만이 전화(戰禍)로 폐허된 이라크 재건에 우리조국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이라크로 파병 되었다고 하여 이라크 군부가 한국군에 진지를 습격이나 폭파를 하지 않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상생 공존의 깊은 인연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시킨다고 무조건적으로 적대시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재건에 우리의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여 부족한 달러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외채가 엄청난 우리들은 너무도 위정자들이 저질러놓은 외채를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300여 만원씩 외채를 안고 태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옛말에 우리 속담에 있듯이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 이라크 파병과 우리들의 각오

말과 같이 이웃에 있는 왜놈들은 6·25로 인하여 부자 된 그들이 틈만 있으면 재무장할 준비를 하고 돈 나오는 일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드는 그들을 물리치고라도 우리가 먼저 이라크에 입성 해야만 많은 재건의 공사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라크에는 파병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담는 격은 되어서 아니될 것이다.

우리 국민 일부가 어떤 감정과 일부 미국병사들의 범죄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운 현실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있지만 세계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조건적 반대는 오히려 우리 국가의 손해가 발생함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왜놈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써야 한다.

침략 조성이 세계 제일 위인 왜놈들은 절대로 남에 나라에 양보란 없다. 우리는 어떤 괴로움과 가슴앓음이 있어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서는 건설에도 일등 파병(이라크)에도 먼저 뛰어 들어 터를 닦고 길을 펴서 달라를 끌어들이는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물과 불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번에 문학과 비평사에서는 좋은 타이틀을 내어걸고 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좋은 예를 남긴다고 보겠다. 우리 문인뿐 아니라 누구도 지금에 처한 현실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으려면 자국의 경제와 국력과 국방자체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한국의 통일을 바라는 이웃국가에서는 한곳도 없다는 것을 한국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북한국민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통일되어 군사력을 남북이 합친다면 이웃 일본이나 중국 소련 미국 등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최고로 강해지니 말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통일을 거들어 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한국의 6·25전쟁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과 독일 등이 한몫 단단히 덕을 보았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6·25가 발발하지 않았던들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독자 스스로 생각할 일이다.

우리는 자기의 권욕과 재욕 색욕 등을 버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녕 화합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라크 파병이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장차 없어 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탁합니다. 한국의 정치인이여 그리고 공직자여! 제발 부정부패를 없애고 자라나는 후손의 안녕과 화평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나라, 깨끗한 유산을 물려 주어 세계속의 으뜸민족, 자활하는 민족, 부강한 민족, 예의바른 민족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너무도 정치적으로 부정 부패와 공직자들의 횡령, 사회적으로 불안한 도적, 강도, 강간, 도박, 인질극, 강압적으로 정치자금 강요 등등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범죄가 모두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합니다.

아~ 대한의 국민이여! 세계속에 위대한 일등국민이 될 수 없는지요…….

2003. 10. 12 새벽 통곡 月仁

(慶北英陽 健一堂)